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6.6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베트남 최전방 사역자들

폴리 목사 부부가 전하는 글



이번 달 소식지에서 우리는 베트남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성도들은 신실한 증인으로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그렇듯이 베트남에도 도시에는 교회들이 공개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정부 요건에 부응해야만 그 공식적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 베트남 복음교회Evangelical Church of Vietnam와 베트남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가 국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외곽, 특히 외딴 지역이나 산간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로 모입니다. 이 성도들은 정부 당국뿐 아니라, 지역 사회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의 뿌리 깊은 전통이나 무신론이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말을 조심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반면, 승인받지 않은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대신, 그 자유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9)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놀랍게도,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교회들이 대체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박해를 받는 비인가 교회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단순합니다. 핍박은 늘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타협을 거부하고 믿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때, 그들의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베트남 관련 소식을 알고 싶으시면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들여다보기

더 깊은 이해

베트남은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깃든 곳이다. 향기롭고 풍미 가득한 음식들, 놀랍고 다양한 생물들, 하롱베이Ha Long Bay의 비취빛 바다 등, 모든 곳에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여행자들은 현지인들의 따뜻한 환대, 경작을 기다리는 비옥한 들판, 대문과 울타리에 자랑스럽게 게양된 국기를 마주하게 된다. 베트남은 여러모로 활기차고 아름다운 나라이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의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도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다. 특히 베트남의 통치 체제와 그것이 베트남 기독교인들에게 가하는 고통에서 그 상처는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베트남은 영적으로 불교와 조상 숭배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있다. 베트남은 라오스, 북한, 중국, 쿠바와 함께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몇 안 되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대부분의 베트남 교회는 설교 내용과 연간 사역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거나 교회 건물 밖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대해 승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감독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지하교회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에 굴복하기를 거부한다.

공산주의 사상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종교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하는 것”이라 주장했고, 어떤 글에서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자에게 나는 복수를 하고 싶다”라고까지 썼다. 굳건히 믿음을 지키기를 갈망하는 베트남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결코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지하교인들과 국가 간의 충돌을 초래한다.

도시 지역 기독교인들은 압박과 감시, 괴롭힘에 시달리는 일이 흔하다. 소수 부족 공동체, 특히 에데Ede족 사이에서는 기독교인 핍박이 종종 폭력적인 행태로 이어진다. 법적으로 허용되는데도 기독교 예배는 엄격히 통제당하며, 전도 활동이나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모임은 철저히 금지당한다.

박해를 주도하는 것이 지방 당국인 경우도 많지만, 대개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나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친족들을 배척하거나 처벌한다.

20년 전에 비해 수감 사례는 줄어들었지만, 베트남 당국은 강제 퇴거 위협, 토지 및 재산 압수와 재물 손괴, 신체적 폭력, 심지어 뇌물을 동원해 사람들이 신앙을 부인하게 유도하는 기만책 등 다양한 수단에 더 많이 의존해 핍박을 가하고 있다. 법률 제한과 번거로운 등록 요건, 비인가 종교 단체를 겨냥한 위협 등이 결합되어 진정한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일부 도시 교회들은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 존속해나가지만, 시골 지역 기독교인들은 종종 ‘외국 종교’의 추종자로 간주되어 잠재적인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받는다. 베트남의 50여 개 소수 부족의 많은 성도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 베트남은 라오스, 북한, 중국, 쿠바와 함께 오늘날까지 여전히 존재하는 몇 안 되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 세례를 받는 베트남 새신자들



▲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베트남 시골 지역 가정교회들

과 기독교 신앙, 둘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잔혹한 학대를 견뎌온 이들도 있지만, 고문 끝에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다.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 여성은 딸에게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살 난 딸의 치료를 거부를 당했다. 다행히 아이는 목숨을 건졌지만,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수많은 성도 모두가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 핍박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하이 형제(Brother Hai)는 지역 당국에 의해 살해당했는데 이후 당국은 그의 아내인 리엔(Lien)까지 공격하고 그들의 집을 불태우려 했으며 그녀의 양계장도 망가뜨렸다. 또 다른 성도인 타이(Tai)는 경찰의 심문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례들은 공산주의 이념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사회를 번영하게 만들어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대부분 파괴나 인간의 고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러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다. 정부 지침으로 인해 자선 단체나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에서도 배제되기 일쑤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지원을 대가로 타협하기를 거부한다. 최전방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이 제한된 지역과 오지 산간 지방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 한 사역자는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누군가 고의로 자신의 차량 연료 탱크에 모래를 부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냥 걸어서 여정을 계속해 나갔다. 주님이 자신을 그 사역으로 부르셨고, 베트남 사람들이 복음에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놀랍게도, 극심한 탄압과 시골 지역의 제약 속에서 교회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는 박해가 특히 심한 지역에서 최전방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 담대한 성도들과 동역하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는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 먼 길을 자청해 사역 중인 최전방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 6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	2	3 지방선거	4	5
	 말라위 전통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야오족을 예수님께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부룬디 전도자들이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도록 (행 4:29)	 북한 사랑하는 가족을 북한에 두고 온 탈북민들을 위로하시기를	 브루나이 성도들이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 현재 성
7	8	9	10	11	12
 쿠바 누명을 쓰고 투옥되어 괴롭힘 당하는 라모스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	 카메룬 보코하람을 비롯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중단되도록	 바레인 바레인 국민의 마음이 계속해서 복음에 열려있기를	 아제르바이잔 교회를 감시, 통제, 폐쇄하려는 정부의 핍박을 교회들이 잘 견디도록	 쿠바 정부의 압박과 위협에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며 세례를 준 것에 감사	
14	15	16	17	18	19
 케냐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도록 (요14:27)	 토고 무장 풀라니족 무슬림의 습격에 위협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집트 믿음 때문에 납치, 고문당한 성도들의 정서적, 영적 치유를 위해	 우크라이나 트라우마 회복 훈련에 참여할 목회자들이 정서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필리핀 극단적인 무슬림이 활동하는 민다나오섬 성도들의 평화와 보호를 위해	 우간다 유
21	22	23	24	25	26
 튀니지 법으로 금지된 일인데도 담대하게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	 예멘 많은 이들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	 파키스탄 신성모독이라는 허위 주장 때문에 공격당한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안이 정부에서 통과되도록	 튀르키예 믿음 때문에 무슬림 가족에게 배척당한 무스타파와 바사크를 위해	 우간다 유
28	29	30			
 인도네시아 마을에서 테러범에게 공격당한 킬라가 정서적,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순교자의 날 가족, 친구, 교회와 함께 영상을 보며 기도하세요. vomkorea.com/doctm	 오만 오만 성도들이 정부에 발각되지 않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순교자의 소리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RIDAY	SATURDAY
5	6 현충일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어 성경이 불법이어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에티오피아 극단주의자의 방화로 교회가 불탄 이들에게 새 예배 처소를 허락하기를
12	13
쿠웨이트 외국인을 위한 현지 교회의 사역이 더욱 확장되도록	라오스 핍박당하는 라오스 형제자매들에게 시편 103편의 축복을 허락하기를
19	20
이스라엘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억압에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무슬림을 위해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 단체 대원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도록 (사 2:4)
26	27
몰디브 성경이 몰디브 주 언어인 디베히어로 온전히 잘 번역되도록	공고민주공화국 성도들이 선한 목자의 보살핌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시 23편)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긴급

박해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베트남 목회자들!

순교자의 소리가 동역하는 베트남 목회자들은 베트남의 가장 외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천후와 험준한 지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겪으며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미행당하고, 위협을 받으며, 물리적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유일한 이동 수단인 오토바이를 압수당하거나 파손당하기도 합니다. 몇몇 동역자들은 지속적인 복음 사역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목회자들은 여전히 험난한 지역에 남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이들이 외딴 산간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생활비가 되어주고, 음식이 되어주며, 오토바이의 연료비, 머물 숙소비 등 모든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다.

- 112,500원으로 베트남 목회자 1명의 사역을 2주간 지원할 수 있고,
- 225,000원으로 베트남 목회자 1명의 사역을 1달간 지원할 수 있고,
- 500,000원으로 베트남 목회자 1명의 사역을 2달간 지원할 수 있고,
- 1,000,000원으로는 베트남 목회자 1명의 사역을 4달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님께서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이용해 주세요. 매월 정기 후원도 가능하고, 일회 후원도 가능합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베트남'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베트남'이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scan me!

아무런 도움도 없을 때

베트남에서 경찰관을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경우, 경찰은 미등록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곤 한다. 정부 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주의 통치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기독교인인 장Giang은 당국으로부터 신앙을 버리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가 이를 거부하자 당국자들은 그를 심하게 구타했다. 장은 치아 하나를 잃었고, 굵은 각목으로 왼쪽 얼굴을 가격당해 왼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폭행만으로도 모자라 당국자들은 장의 밥술에 소변을 보기까지 하면서, 그가 계속 신앙을 고수하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성도인 딘Dinh 역시 비슷한 핍박을 당했다. 당국은 딘이 기독교인임을 알고 찾아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강요했다. 딘은 굳건히 버텼다. 그러자 당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가 운영하던 작은 양계장(닭 17마리)을 파괴하고, 갖고 있던 돼지 두 마리도 죽여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딘은 도망쳤고 신체적 폭행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후로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를 들었다.

베트남 기독교인들은 경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응급 의료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누군가 다치면 본능적으로 의사를 찾지만, 베트남 성도들은 필요할 때 의료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고 배워왔다. 안An이라는 형제의 딸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무당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기독교인이 된 이후 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지역 병원에 딸을 데려갔을 때, 병원은 치료 자체를 거부했다.

이 성도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로부



어느 가정 교회 외벽에 걸린 현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가 적혀 있다.

터 받아야 할 당연한 지원 대신 위협을 받고 있다.

복종을 강요하는 당국자 앞에 서게 되거나, 정당한 도움을 구하려 해도 단지 믿음을 이유로 거부당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성경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지만(롬 13장 참조),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더 높은 권세, 즉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을 바라본다. 많은 베트남 형제자매가 구타와 상실, 잔혹한 대우를 견뎌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늘의 시민권을 굳게 붙들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벧전 1:4)을 기다리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는 장과 딘, 그리고 안의 딸처럼 도움을 거부당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긴급한 필요를 채우고 손실된 물품을 보상하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사역에 아낌없이 헌금해주는 후원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본래는 자신을 보호해주어야 할 이들에게 배척 당해 완전히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형제자매들도 도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했다는 이유로 당국자들에게 구타를 당하고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



딘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자, 당국자들은 그의 가족을 죽여버렸다.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발과 바퀴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발과 바퀴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험준한 지형을 가로질러 진흙투성이에 자갈밭으로 뒤덮인 밀림 여기저기를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다니는 남녀 사역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주님은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도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이 헌신적인 종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가신다.

순교자의 소리는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전도자와 교회 개척자들에게 오토바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 오토바이들은 화려하거나 시선을 끄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사실 그런 오토바이는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역자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가고,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 방문하고,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인 오토바이를 제공받는다. 이 오토바이는 오직 사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된 이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런데 이 단순한 기능만 갖춘 오토바이를 작은 배에 싣고 강을 건너 오지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 사역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성취에 참여한다. 지상대명령은 지형이 험난하다고 해서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한다.

오토바이를 받은 사역자 중 하나인 바오Bao는 이 지원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되돌아보았다. 바오는 전도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직접 받았는지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격려가 아니었다면 그토록 힘든 역할을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오는 가족을 부양하며 여러 명의 고아도 돌보고 있었는데, 이동 수단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길을 나서던 때와 같이, 바오도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바오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소리를 통해 오토바이를 마련해 주셨다고 간증했다. 그리고 이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복음 사역자, 후인Huynh은 성도들이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 살다 보니 사역을 위해서는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나의 사명을



아시기에, 나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후원해주는 순교자의 소리 후원자들을 통해 내게 오토바이를 새로 마련해주셨다”라고 고백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산간 지역에서 사역 중인 판Phan 목사도 여러 가지 핍박을 겪어왔는데, 그가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낡은 오토바이를 계속해서 파손하려는 시도도 그 중 하나이다. 파손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수리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 힘든 시기, 친구 목회자인 후에 Hue 목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해 주었다. 판 목사는 새 오토바이를 지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최전방 사역자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험한 날씨와 위험한 도로 상황은 물론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핍박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고, 미행이나 감시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토바이가 파손되거나 완전히 파괴되거나 아예 압수당하는 사례들도 계속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은 실질적인 지원에 신실한 기도가 항상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이들 사역자는 진흙탕과 자갈밭, 가파른 길목이라는 베트남의 물리적인 지형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어둠과 저항으로 점철된 영적인 지형까지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최전방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들이 베트남 곳곳 깊숙이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시며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평강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의 발과 오토바이 바퀴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매년 6월 29일은

기독교 순교자의 날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순교한 베트남 사역자 팻 형제를 기억하며, 올해도 전 세계 기독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단체, 가정, 소그룹과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① 순교자의 소리에서 제공하는 단편영화 함께 시청하기 (왼쪽 QR코드)

- <https://vomkorea.com/dotcm/>



2026년 팻 형제



2025년 칸데 무두



2024년 세르게이 비사랍



2023년 압디웰리 아흐메드



2022년 리신형과 명리시



2021년 로치오 피노



② 박해로 목숨까지 잃는 상황에서도 험난한 지역에 남아 사역을 이어가는 베트남 목회자를 후원하기

- 소식지에 소개된 **핍박받는 목회자들의 긴급한 필요들을 채워주는 데** 즉각 사용됩니다.

후원방법

-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사) 순교자의 소리 <https://vomkorea.com/donation/>

2026 하반기 드디어 제주도에서 지하신학교가 열립니다!

지하신학교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신구약 말씀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나를 구원하기위해 돌아가신 '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계시된 '큰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2025년 지하신학교 참석자들의 피드백

"교회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어려운 시대이다. 순수한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학교다"-문O 목사

"1강만 들어도 등록금이 아깝지 않다. 복음에 대해 배우고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김OO 집사

"종교의 자유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시간이었고 진짜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는 성도라면 꼭 한번 들어보도록 추천한다"-김OO 집사

신청방법 및 강의내용

■ 6개월 과정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월 1회 (8.22 / 9.19 / 10.31 / 11.21 / 27.1.23 / 2.20)

※ 날짜 변경시 2달 전에 미리 안내 드립니다.

■ 훈련비 : 400,000원(6개월 과정, 식사 제공)

■ 강사 :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 현숙 폴리 대표

■ 장소 : 순교자의 소리 제주홀 (구체적인 장소 정보는 등록 시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010-3151-2065 / 02-2065-0703

※ 지하신학교는 목회자와 성도, 모든 기독교인이 신구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훈련합니다. (별도의 학위는 없습니다.)



8/22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9/19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10/31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11/21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1/23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2/20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폴리 목사의 <신간 도서>

지하신학교 강의 내용을 담은 『복음』 책과 양육교재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소개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복음』



에릭 폴리·현숙 폴리 지음 | 20,000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깊이 있게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 그 이상의 온전한 의미로 이해하고 그분의 재림을 향한 소망을 꿈꾸게 한다.

실제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제자훈련 방법을 제시하는 책

『모든 것을 드리는 삶』 ①, ②



에릭 폴리 지음 | 세트 30,000원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은 마태복음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개인, 가족, 셀그룹, 교회가 순종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제자훈련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리스도의 10가지 "사랑의 실천사역"(선행하기, 떡 나누기, 집을 열기, 치유하기, 용서와 화해 등)과 7가지 "경건의 행위"(내적인 영적 훈련, 즉 성경말씀 찾기, 기도, 예배, 베풀기 등)의 의미를 성경 원문에서부터 배우고 실천하게 도움으로써 기독교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한다. 12개월 동안 각 주제를 한 달씩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매년 반복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숭실로 26 지층
문의: 02-2065-0703 (화~토 9:00~5:00)

www.vomkorea.com/donation
후원계좌: 국민 463501-01-243303

도서 구매는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국민은행 463501-01-244988